

목양실에서



먼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알버커키 교회로 처음 부임했을 때에도 광야의 소리를 발간하기 위해서 여러 번 계획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본 소식지 역시 2006년에 만들어 놓았던 초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를 발간해야 된다는 것은 미리부터 알고 있었지만 미루다보니 벌써 5년이 다되었습니다. 마침내 2009년을 기해서 다시 광야의 소리가 출간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분주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야에 각 속회가 모여 정성껏 준비한 행사를 발표하면서 모두를 즐거워했습니다. 성탄절인 25일에는 성찬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8년도를 보내면서 아쉬운 마음들을 달래기 위해서 12월 31일 저녁부터 모여서 남선교회에서 준비한 재미있는 놀이를 했습니다. 교회와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상품 외에도 A-1 식품점과 킵스마켓에서 기증한 상품들까지 합쳐 참으로 풍성한 상품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두들 받은 상품이 너무 많아 감당키 어려웠음에 차로 옮기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기획하신 남선교회 김기동 회장과 사회를 보신 박찬민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12월 31일 자정에 드리는 송구영신예배 또한 올해는 특별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교회가 꼭 할 정도로 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제가 부임한 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젊은 층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하여 교회의 기초를 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랜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연로하신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교회를 젊어지고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젊은 세대들이 자리를 잡게 될 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의 역사가 27년이 되는 올해에 중대한 일 중에 하나가 교육관 증축입니다. 우리는 이번 증축 계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목사관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목사관을 팔 때부터 인간적인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모든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건축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지금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해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의 건물을 세워주셨습니다. 올해 안에 완공될 교육관 증축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2009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변화에 관한 인도의 성자 선다당의 비유를 소개함으로 본 글을 맺으려 합니다. “뱀이나 누에는 모두 겹질을 벗는 변화의 과정을 겪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뱀은 여러 번 그 겹질을 벗는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죄인은 죽어서도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누에는 갑갑한 고치를 벗어버리면 전혀 다른 모습의 나비가 되어서 공중을 자유롭게 날아 다닙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육신을 벗어 버리고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누에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기천 목사)

발행인: 김기천 abqkee@msn.com
 편집인: 총무역사부 권구자 kuchachoy@comcast.net
 (다음 호 원고는 편집인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소식지
 Newsletter of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교회:(505) 341-0205 사택:(505) 828-4773 WWW.KUMCABQ.COM

내용 Contents

1. 목양실에서 page 1
2. Big Bang 설과 창조론 (김준호 장로) page 2
3. 불링대회를 마치며 (서혁상 집사) page 3
4. First Ever Children's Retreat a Success: 주일학교 수련회를 다녀와서(한운미 집사) page 3
5. Special Tutoring for Students (이원규 집사) page 4
6. Transition and the Importance of Preparation for Colleg (전웅경 교우) page 5
7. 마태복음 주석 11:1-17절 (김기천 목사) page 5
8. 이 달의 묵회월력 page 7

Big Bang 설과 창조론

김준호 장로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공통번역 히11:3)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안다. 그러나 창조론과 진화론은 현대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더 치열한 대립을 이루게 되었고 또 Big Bang Theory (BBT)가 진화론과 합세하여 창조론자들을 공격하고 기독교인들을 멸시한다. 필자는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교회 Newsletter지, 광야의 소리, 1999년 가을 호, “태초에 창조된 파동설”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역사적으로 유수한 과학자들이 지구, 달, 태양, 은하수, 태양계 등 이 우주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규명코자 많이 노력해 왔다.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Big Bang Theory (BBT)인데 그 이론을 입증한다는 연구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BBT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모순점을 지적해서 이 우주는 우리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재확인코자한다.

George Le Maitre는 Belgium에서 태어난 카톨릭 대주교이었는데 Einstein이 1915년에 발표한 상대성 이론을 듣고 만약 그 이론이 맞다면 이 우주는 필연코 팽창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후 Le Maitre는 1927년에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해에 BBT를 발표하였다. BBT에 의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여러 방향으로 팽창해 나가고 그 구성요소도 동일하며 여러 가지 법칙들이 적용된다는 가설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별로 관심들이 없었다. 그러던 중 1929년 California, Wilson Observatory에 근무하던 Edwin Hubble이 은하수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Hubble은 Le Maitre가 제안했던 BBT가 있는 것을 미처 몰랐지만 Le Maitre는 Hubble의 발견한 결과를 토대로 삼아서 그렇다면 이 우주는 시작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거대한 덩어리 (Cosmic Egg)가 폭발 (Big Bang)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몇몇 과학자들이 BBT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은 그 Cosmic Egg는 무엇으로 구성되었고, 왜 그것이 폭발하였고, 그 Energy는 어디서 왔을까, 등등 이런 의문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Le Maitre는 계속해서 Cosmic Egg가 폭발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잔류 전자파가 남아있

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우주는 변화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고집해 오던 중 1964년에 Arno Penzias와 Robert Wilson이 상기한 잔류 전자파가 실제로 존재함을 발견함으로써 Le Maitre의 BBT가 승세를 거두게 된 것이다.

그러면 과연 BBT가 정말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자타가 인정하는 타당한 기원설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 연구하고 탐구하면 할수록 그 해답이 풀리지 않고 더 미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우주의 기원은 Cosmic Egg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마치 계란에서 닭이 부화한다는 식이다. BBT는 한마디로 확증이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고 본다. BBT에 의하면 이 우주는 150억 년 (15 billion years) 전에 Cosmic Egg가 폭발 (Big Bang)해서 우주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어떻게 Cosmic Egg가 형성되었고 어떻게 그 Egg가 그 폭발된 위치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아직 설명이 안 되고 있다. 또 Big Bang이 일어난 동기 역시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설사 그 Egg가 폭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파편들은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만 번져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1986년에 Hawaii 대학의 R. Brent 교수는 거대한 은하수를 발견했는데 이 은하수의 크기는 무려 800억 년 (80 billion years)이 걸려야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BBT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로써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공통번역)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은 도둑처럼 예기치 않게 오며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천체는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재림의 날이 글자 그대로 Big Bang의 날이 아니겠는가!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하였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시원스러운 말씀인가! 이 우주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구차하게 Cosmic Egg며 Big Bang를 들추어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것으로 족하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창조되었으므로 제 아무리 과학자들이 BBT를 보완하고 새로운 기원설을 만들어도 이 신비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또 실패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 이상 또 다른 이론이 사실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블링 대회를 마치며……

서혁상 집사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말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 16:3).”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링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나는 이렇게 외쳤다. 이번 대회는 두드리면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또 한 번 체험하는 값지며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지난 1월 중순 남 선교회 주최 새벽예배를 마치고 조찬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에서 연초에 달라스에서 개최된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남 선교회에서 친목을 위해 블링 대회를 개최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다. 이런저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 추진해 보겠다고 말하고 나서 내심 걱정이 앞섰다. 많은 분들이 오실까? 경비가 많이 지출되지만 않을까? 언젠가 좋을까? 전 교인이 함께하나? 등등……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겼다. 물론 블링이야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운동이긴 하지만, 바쁘신 성도님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은 정말 고민거리였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다시 그 고민거리들이 날 찾아왔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고민이 벌써 30분-한 시간을 지냈을 무렵 크리스천인 내가 왜 이려고 있지? 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날 밤 나는 기도 중 잠이 들어 버렸다. 아침에 일어나니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을 주재롭게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 한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또 한 번 주님은 내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여쭙고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블링대회에 관한 고민거리는, 순풍에 돛을 단 듯 해결되어 갔다. 차를 타고 나가면 많은 블링장들이 보였고, 남 선교회의 때마다 저조한 출석률은 내게 남성 교우들의 친목과 단합을 우선시 하게 하였으며, 대회선물을 사러 COSTCO에 갔을 때엔 사려는 품목이 세일을 하여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믿음직스러운 김운순 선생님과 대회준비를 같이할 수 있어 든든했다. 참으로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순리대로 풀려나술을 풀려나갔다. 하지만 대회 전 날, 이런 준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시는 성도님이 적으시면 어쩌나 라는 걱정이 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걱정은 물위를 걸으라 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여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세상의 이치를 인간의 순리대로 생각했던 나의 부족한 믿음의 소산일 뿐이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이런 부족한 믿음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 주셨다. 대회당일 남 선교회 은행 구좌 개설이 생각보다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대회시간 보다 약간 늦은 시간에 도착했지만 그곳엔 이미 일곱 분이 나 미리 오셔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 블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응원하러 나와 주신 전용배 집사님과 유일하게 한국어가 아니신 브라더 찰스 (Brother Charles)와 브라더 토미 (Brother Tommy)는 누구보다 든든한 대회 후원자이셨으며 참여인원을 걱정하며 기도한 내게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이셨다. 당초 예상을 10명으로 생각했으나 11명이 참여하셨고 대회 후 식사 때는 세분이 늘어난 14명이 함께할 수 있었다.

참으로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내게 분명히 이번 대회를 통해 지키신 것이다. 나는 이번 대회를 마치며 우리 남성 교우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또 우리교회가 이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각 지역으로, 미국 전역으로, 아니 전 세계로 전파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First Ever Children's Retreat a Success

Amy Lee

"It only takes a spark to get a fire going," from the song by Kurt Kaiser was the theme for the first ever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children's retreat held at the Christian Vision Academy in Cuba, New Mexico. Over twenty kids enjoyed the outing which started with a carpool from the church on Friday, the 24th of March 2006. We all arrived safely to the center by 7:00 p.m. and wasted no time in getting into the swing of things. We had to since this was just an overnight stay into Saturday.

The evening started off with a great meal prepared by the Women's Ministry. In grand Korean style, we had bul-ko-gi, rice, and kimchi. It's safe to say that we were not "roughing it." Matter of fact, this was the best food I ever had at a retreat. After dinner, we had our evening worship. We sang songs of worship and Mr. Won Lee, one of the Sunday



School teachers, shared a lesson about putting God first in our lives. After the worship, we built a huge camp fire and r o a s t e d

marshmallows and made s'mores. The evening ended at 12:00 midnight, at least for some of us. The children were up as late as 2:30 in the morning, as we found out the next morning.

The next morning on Saturday, we had breakfast. One would expect something light, perhaps a bowl of cereal or a bagel. Instead, we had a great spread that would rival IHOP. We had bacon, scrambled eggs, bagels, croissants, and fruits. Wow! The kids raved about the food. After breakfast, we headed to the worship hall to have our Saturday worship filled with songs and a message by Dr. Joon Ho Kim, one of our lay elders. We also had a skit contest which turned into a great success. All of the kids enjoyed each other's skits. Laughter was had by all. But more importantly, we received God's message through creative skits. The winning skit, a portrayal of Jacob, Leah, and Rachel, was a smashing hit.

After the morning worship, we headed outdoors for some physical activity. First we played four games of dodge ball. Kids were getting nailed with nerf basketballs and they enjoyed it. We also played kickball. Thereafter, we went on a 30 minute hike through the trails. The hike was highlighted with Paul Kim's slide down the side of a hill where he soaked his pants in mud. Lunch was hamburgers, hotdogs, bratwursts, and fruits. Again, the food was first class representing the culinary skills of our church members.

Overall, the retreat was a success. The children enjoyed the outing. Several students asked why we couldn't stay longer. Only weeks before the retreat, many of the kids thought that it was going to be boring. Many of the students expressed interest in attending more retreats. This was the "spark" that will "get the fire going" in our children's hearts and souls for the Lord. God smiled on the first ever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children's retreat.



Special Tutoring for Students

Won K. Lee

"A teacher affects eternity; he can never tell where his influence stops." (Henry Adams, *The Education of Henry Adams* [1907])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KUMC) of Albuquerque, New Mexico has been offering special tutoring opportunities for their High School students. It all started with students and parents expressing their needs for additional guidance. Fortunately for the church members, the KUMC has been blessed with numerous members of the congregation with advanced degrees. Several members have Ph.D.s in math and science backgrounds, Juris Doctorate in Law, and others have extensive computer backgrounds. These diverse educational experiences provided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for KUMC students.

Back in November 2005, Dr. Peter Chun offered to head up a team of tutors to help high school students in math and verbal skills required for the SAT. The team consisted of Dr. Jason Min, Dr. Tommy Ao, Mr. Yoon Soon Kim, and Mr. Won Lee, in addition to Dr. Chun. While Dr. Min, Dr. Ao, and Dr. Chun provided the vast majority of the math and science expertise, Mr. Kim added verbal as well as computer expertise, and Mr. Lee provided reading and writing skills with his legal background. Of course, Dr. Chun also provided reading and writing instruction since he also has an MBA in addition to his Ph.D. This robust team of tutors shared their expertise with our students; now going on for six straight months.

While the students received immense educational expertise from our team of tutors, they have also been receiving college and career guidance. In many of the sessions, our instructors have answered questions about the college application process. Upon discovering that many of the students had very little knowledge in gaining entrance to colleges, Dr. Chun and Mr. Lee decided to conduct a seminar regarding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is presentation was provided to over 20 in attendance on 1 April 2006. The seminar was well received and there are plans to provide

similar seminars in the future.

The tutoring service has been a unique opportunity, not only for the students, but also for those of us privileged to instruct. There is a gratifying feeling when we give to others. In this case, providing a little of our time to teach our children is also an opportunity for us to give to the Lord. God has blessed the KUMC in many ways and this tutoring service is yet another way, our students and tutors were rewarded.

Transition and the Importance of Preparation for College

Peter Chun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is a time of great change and adjustment. Although many may find the transition difficult, preparation, planning, and a strong sense of faith can help mitigate the hardships of this adjustment to a more independent state.

The move to college is strongly correlated with a move to more independence. The transition can be seen as a metamorphosis from a dependent state to a more independent state. No longer are the parents there to nudge their children to attend class. No longer do the students have the security of their parents' home. It is in this new environment, college, in which many of the new college students learn to develop themselves and prepare to take their leap into society as full fledged adults. The trials and tribulations of college can be arduous and painful for those least prepared. New workloads, new friends, new environments, many unknowns, etc. can be overwhelming to those unprepared to deal with such changes or endeavors.

When a change is too much, there can be a shock. Preparation and understanding help mitigate the creations of such shocks. Preparation and understanding help mitigate the creations of such shocks. In addition, a sense of strong faith helps the growth process evolve about a strong core that allows the student to better deal with any turbulence. College is a time of a great rush of new knowledge. The body of knowledge is immense and awesome. The student with a great deal of preparation and understanding of what to expect can accept this new knowledge more readily. Mental preparation and development makes understanding and

assimilation easier. In addition, with a strong sense of faith, there is not only a sense of anchoring to firm, healthy roots but also the presence of a rudder that can help guide the student more safely and happily through turbulent transients.

Academic, emotional, and spiritual preparation can greatly help our students succeed in their next large step into the real world. During the high school years, extra academic help can be provided by various educational institutes or tutoring. In addition, it is no secret that well developed faith can help provide emotional and spiritual support during future transitional times. As students venture into the world of independence, their level of success in college will be greatly determined by proper preparation during their high school years. However, many of the preparations will stem from outside of their high school. Faith, strong family support, additional academic preparati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etc. can help prepare and develop our students for a more independent course into the real world. When our students are better prepared, we will more likely experience great joy with their success in their own understanding of their college years.

마태복음 1:1-17절 주석

김기천 목사

본 단락은 예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 첫 14 세대는 다윗 왕까지고 둘째 14 세대는 바벨론 포로기까지 마지막 14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이다. 다윗 왕과 바벨론 포로기와 그리스도의 탄생은 족보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다윗에 의해 든든하게 세워졌던 왕권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 무너져 버렸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구조를 보여 준다.1) “14”라는 숫자는 다윗 왕의 이름과 연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윗(דָּוִד)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볼 때 달렛(ד)과 와우(ו)와 달렛(ד) 세 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히브리어 자음은 나름대로 수(數)를 가리키기도 한다. 즉 달렛(ד)은 숫자 4에 해당하고 와우(ו)는 숫자 6에 해당한다. 결국 다윗이란 이름을 숫자로 계산해보면 $14(4+6+4)$ 가 된다. 마태는 “14”라는 숫자를 통하여 예수는 다윗 왕의 왕권을 이어받은 분임을 암시하고 있다.2)

1) Willoughby C. Alle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77) 2

2) David Hill, *The Gospel of Matthew*, New Century Bible, (London: Oliphants, Marshall, Morgan and Scott Blundell House, 1972) 74;

쪽보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 마태는 주로 헬라어 구약 성경 칠십인 역본³⁾(LXX)의 역대상 1-3장을 따르고 있다.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도 쪽보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 한다.⁵⁾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다말, 라합, 롯, 밧세바”와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쪽보에 언급된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모두 결혼 생활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었다. 근친상간에 관련된 다말, 기생이었던 라합, 본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하게 된 롯, 간통 당한 밧세바 등이 쪽보에 나오는 여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전통은 이 여인들을 칭송하고 있다. 다말의 행위를 “좋은” 행위라고 하며(창 38:26), 라합을 “의로운” 여인이라고 하고(히 11:31, 약 2:25), 롯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여겼으며, 밧세바의 경우에도 다윗의 행위를 꾸짖었지만 밧세바는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여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쪽보에 올라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꼭 일상적인 관습 안에 갇혀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마태는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parthenogenesis)을 소개하면서 이성의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의 사건을 선포한다. 스탕달(Stendahl)은 이것을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의 불규칙성”(divine irregularity)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한다.⁶⁾ 이 여인들이 갖는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 이방인이라는 것이다. 기독교 이전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 다말을 이방 여인으로 불렀으며⁷⁾ 라합과 롯은 분명히 이방 여인이고 밧세바는 이방 남자 무리야와 결혼했기 때

문에 이방 여인이 된 경우이다. 이런 이방 여인들이 쪽보에 들어온 이유는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⁸⁾

마태 쪽보는 예수의 합법적인 활동을 밝히는 역할도 한다. 그 이유는 당시의 상황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예수도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치시곤 했으며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도 했던 것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다. 초기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이었다. 이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 왔던 메시아임을 믿었기에 성전에서 회당에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던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게 일어나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교 성전이나 회당에서 배척당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쪽보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으로써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려 했을 것이다. 둘째로 예수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믿는 기독교 전승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켈수스(Celsus: 후후 170-180년경)는 이미 “예수는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사생아”라는 유대인들의 조롱을 알고 있었다. 이런 기독교를 반박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당시의 전해져 내려오는 쪽보를 토대로 예수는 합법적인 다윗의 자손이며 “다말, 라합, 롯”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가 탄생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⁹⁾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쪽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제사장들 계열에 대한 쪽보는 공식적으로 계속 보관되어 있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활동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를 통해 얻고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헤롯 1세(주전 37-4)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매인”이라 부르는 예돔 사람이었다. 이런 헤롯은 통치 당시 정통 유대인 활동을 이어받은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사람 안티고누스가 유대 민족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란을 일으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헤롯 1세가 죽고 팔레스타인은 셋으로 나누어져 헤롯의 활동을 이어 받은 세 아들이 다스렸다.¹⁰⁾ 이방 활동을 가진 헤롯 가문의

John J. Kilgallen, *A Brief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Lewiston, NY: 1992) 8

3) 마태가 사용한 구약 인용문들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번역본인 칠십인 역본(LXX)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것도 사해에서 발굴된 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루키안 본문과 관련된 옛 팔레스타인 전승 칠십인 역본 본문(LXX)들에 가깝다. 참조, F. M. Cross, Jr., *The Ancient Library of Qumran*, (New York: Doubleday, 1958) 124이하

4) 마1장2절=대상1:34,2:1, 마1장3절=대상2:4,5,9, 마1:4-6절=대상2:10-13, 3:5,10-15, 마1:12절=대상3:17-19, 마1:13-16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다. 그러나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기간에 기록된 유대인 자료들이나 또는 아람어로 기록된 문헌들에 의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 Edfu 파피루스(주전 3세기)에 유사한 이름들이 부분적으로 언급되어있고, Aristeas 서신에 언급된 70인역 번역자 이름들 가운데, 요세푸스의 글이나 아람어로 된 파피루스 가운데 그리고 주후 1세기 묘비들 가운데서 이들 이름을 찾아 볼 수 있다. 참조, W.F. Albright and C. S. Mann, *Matthew*, 3; David Hill, *The Gospel of Matthew*, 74

5) Craig S.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78

6) David Hill, *The Gospel of Matthew*, 74; Ulrich Luz, *Matthew 1-7, A Commentary*, 109; Keener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야곱의 아내 라헬 같은 여인들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어 아이를 낳는 기적을 체험한 경우라고 지적하면서 마태쪽보에 여인들만 “기록한 불규칙성”이란 틀로 보는 것을 반대 한다. Craig S. Keener,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tthew* 79

7)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 여겼다. Pseudo-Philo의 *Biblical Antiquities* 9:5절에 보면 이방인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거절한 다말을 칭찬한다.

8) Eduard Schweizer, *The Good News according to Matthew*, trans. by David E. Green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25

9) Willoughby C. Alle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7

10) 헤롯 1세는 사마리아 출신인 4번째 부인 말파케(Malthake)를 통해 주전 25년경에 아겔라오를 낳고 주전 23년경에 헤롯 안티파스를 낳았다. 또한 예루살렘 출신인 5번째 부인 클레오파트라를 통해 주전 24년경에 빌립보를 낳았다. 아겔라오는 주전 4년부터 주후 6년까지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렸고, 헤롯 안티파스는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통치자들은 당시에 유대 왕이나 귀족의 혈통을 알려주는 많은 공식적인 기록들은 없애버렸을 것이다.¹¹⁾ 단지 개인적 기록들만 보존될 수 있었을 것이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3:23-38)는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 마태와 누가 족보는 다음과 같이 서로 일치하는 점들을 가지고 있다. 예수는 요셉을 통해 이어온 다윗의 후손이다. 예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parthenogenesis)이고 기적의 사건이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¹²⁾ 그러나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는 점도 많다. 누가는 다윗 왕부터 그리스도까지 43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단지 28 명만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다윗의 아들 나단(참조, 삼상 3:23-38)을 통하여 아담을 거쳐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마태는 왕의 혈통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차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는 예수의 혈통의 기원이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는 예수가 왕의 혈통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누가의 족보(3:23이하)나 헬라식 족보는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상을 찾아 올라가는 순서를 보여준다. 이런 경우에 족보의 중심은 기록된 마지막 조상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태의 족보는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후손에게 내려오는 순서로 적었다. 이런 경우에는 족보의 초점은 마지막에 언급되는 후손에게 있는 것이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도 결국 마지막 이름인 노아에게 중심이 있으며 끝이 노아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아담의 족보라기보다는 노아의 족보인 셈이다. 마태도 “족보”란 헬라어 구절 Βίβλος γενέσεως(비블로스 게네세오스)만 창 5:1절을 따른 것이 아니라 족보 형식도 창세기를 따르고 있다. 결국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의 족보인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태 족보의 조상들이 족보에 기록된 마지막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연관되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으며, 빌립보는 주전 4년부터 주후 34년까지 북부 트랜스 요르단을 다스렸다.

11) 주후 1세기까지도 유대 땅에 족보들이 있었다. 에스드라의 족보 (2 Esdras 1:1이하), 토빗의 족보 (Tobit 1:1), 유딧의 족보 (Judith 8:1), 마카비의 족보 (1 Maccabees 2:1) 등이 이런 사실을 입증해준다. 요세푸스는 제사장 족보 등과 같은 공식 기록들이 보관되고 있었다고 한다 (Josephus, *Against Apion* 1:7, *Life* 1). 아프리카누스 (Julius Africanus)는 헤롯 왕이 이런 기록물들을 없애 버렸다고 한다 (Eusebius, *Ecclesiastical History*, 1. 7. 13). Jack P. Lew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Part I(1:1-13:52), *The Living Word Commentary*, (Austin TX: Sweet Publishing Company, 1976) 36

12) W.F. Albright and C. S. Mann, *Matthew*, *The Anchor Bible*, 9th ed.(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2) 6

1월 목회 일력

1월 4일 주일

성탄후 2째주 자색
안내:이철수 최은주
축말: 송정옥 맥스웰
예배기도: 현용규
헌금: 박찬민 함은경
식사: 여선교회 떡국
정리: 남부 속회

1월 6일 화요일 주현절

1월 11일 주일

주현후 1째 주 녹색
임원 헌신 예배
안내:이철수 최은주
축말: 송정옥 맥스웰
예배기도: 오 영
헌금: 박찬민 함은경
식사 정리: 남부 속회

1월 16일 토요일

여선교회 주최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1월 18일 주일

주현후 2째 주 녹색
성가대 헌신 예배
안내:이철수 최은주
축말: 송정옥 맥스웰
예배기도: 허정봉
헌금: 박찬민 함은경
식사 정리: 남부 속회

1월 25일 주일

주현후 3째 주 녹색
안내:이철수 최은주
축말: 송정옥 맥스웰
예배기도: 김안숙
헌금: 박찬민 함은경
식사 정리: 남부 속회

1월 26일 월요일 구경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송명희

내가 진실로 너를 사랑하기에
너에게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여
그 짐을 나의 어깨에 짊어지고
너를 내 눈동자처럼 보았으며
내가 너의 길에 동행하여
항상 살피었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애통하기를
허리가 녹기까지 하였으며
내가 너를 인하여 흘린 눈물이
바다의 모든 물보다 많으니
내가 너로 미칠 듯 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죄 많은 너의 죄를
내 육체에 묻혀서
내가 나의 몸을 때렸노라

나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나
너를 인하여 사람이 되었노라

너를 징벌하기가 싫어서
나의 몸에 상처를 내고
나의 손과 발에 못 박았으며
내 옆구리를 찔렀노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여서
나의 삶은 버리고 죽었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므로
내 마음이 깊은 곳에서 동하며
내 심령이 타는 불길이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내 자신까지 주었는데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과연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가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505) 341-0205, (505) 828-4773 WWW.KUMCABQ.COM

stamp
우표



To: